



▲吳明체신부장관(오른쪽)과李漢彬이사장이 현판하고 있다.



통신개발연구원 개원

통신관련분야를 사회과학적으로 접근하여 연구하게 될 통신개발연구원이 지난 1월 30일 현판식에 이어 출범했다.

기존의 통신정책연구소를 확대 개편한 통신개발연구원은 통신관련 정책과 산업에 관한 연구를 주로 하여 정책에 반영시키게 된다.

체신부는 이 연구원 설립을 위해 지난해 말 통신개발 연구원법을 제정 공포한 바 있다.

이에 근거하여 그동안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던 통신정책연구소의 인원과 자산을 모두 흡수하는 한편 한국전기통신공사로부터 출연된 1백60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통신개발연구원은 통신 중장기 발전방안, 국내외 통신관련정보의 조사·수집·분석·보급, 정보화사회에 대한 미래상 세시 등의 연구활동을 전개한다. 그리고 통신기기 제조 및 산업과 관련해서는 통신산업체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연구용역 및 자문활동도 하게 된다.

이로써 국내 통신분야는 전기통신연구소의 기술 개발과 통신개발연구원의 정책적 이론 개발로 연구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게 되었다.

한편 金世源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소장이 초대 원장으로 선임되었는데, 김 원장은 브رات셀대에서 국제경제학석·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동대학의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및 유럽연구소 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및 산업연구원 감사직도 맡고 있다.

프랑스정부 학술부문 瑞士훈장과 매일경제신문의 이코노미스트상을 받기도 한 김 원장은 3년 임기로 서울대 교수직을 겸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지난 84년 통신정책연구소발족과 함께 소장직을 맡아왔던 洪炳裕박사는 부원장으로 선임됐다..



▲金世源 원장



▲洪炳裕 부원장

한국항만전화·한국여행정보 공중통신사업자 인가받아

한국항만전화와 한국여행정보가 새로이 공중통신사업자로 지정됐다.

체신부는 최근 이들 두 업체가 공중전기통신망을 이용, 공중통신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 공중통신사업자는 한국전기통신공사와 한국데이터통신과 함께 4개 업체로 늘어났다.

항만전화는 항만내 설치된 교환설비를 이용하여 부두에 정박중인 선박과 육상의 해운관련 기관 및 일반가입자를 연결한 통신설비 운영,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를 사업내용으로 하여 허가를 받았다.

또한 여행정보는 항공예약에 관한 정보교환 시스템의 구축운영, 여행사의 항공권 공동판매 시스템 개발 운영, 유관 여행정보 시스템과의 접속 시스템 운영, 전산단말기 설치 및 임대 등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법상 주식회사인 이번 두 업체의 인가는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의 제3조 2항에 근거한 것이다. 同조항은『체신부 장관은 공중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技術的

공중통신사업자 인가 내용

사업자	사업 내용	근거	인가일자
한국전기통신공사	● 음성통신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 1호 : 국가기관	82. 1. 1
한국데이터통신	● 정보통신	동시행령 제3조 1항 2호 : 정보 또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자본금의 3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공중통신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고자 하는 자.	82. 3. 18
한국항만전화	● 항만내 설치된 교환설비를 이용하여 부두에 정박중인 선박과 육상의 해운관련 기관 및 일반가입자 간을 연결한 통신설비 운영 ● 동 시설관리 및 유지 보수	동시행령 제3조 2항 : 체신부 장관은 공중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기술적·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 법인을 공중통신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88. 1. 7
한국여행정보	● 항공예약에 관한 정보교환 시스템의 구축 운영 ● 여행사의 항공권 공동판매 시스템 개발 운영 ● 유관여행정보 시스템과의 접속 시스템 운영 ● 전산단말기 설치 및 임대	"	88. 2. 13

地域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法人을 공중통신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데이터통신과 통신공사의 경우는 시행령 3조의 국가기관 혹은 통신공사가 자본금 3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자격으로 사업자 인가를 받았다.

항만전화주식회사는 인천·부산·울산·마산·동해 등 5개 항구의 항만전화를 관리하며 항구에 정박중인 선박과 육상 해운기관과의 통신업무를 전문으로 하는데 서비스 개선과, 경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공중통신사업자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번 인가로 공중전기통신망을 통해 일반가입자와의 통신이 가능해짐에 따라 항만전화는 기존의 기계식 교환기를 전전자식으로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여행정보는 대한항공과 데이터통신의 합작사로 대한항공의 좌석예약시스템을 주축으로 국내 취항 외국 항공사와 공동으로 좌석예약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